

출소자의 심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

김 경 아* · 이 창 배** · 공 정 식***

〈요 약〉

이 연구는 출소자의 심리건강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합동결혼자원을 받은 출소자 21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 월수입 등이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심리건강의 위험요인 중 우울과 대인예민성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건강 보호요인인 자존감이 높을수록 위험요인인 우울과 대인예민성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높은 자존감은 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위험요인을 긍정적 삶의 변화로 촉진시켜 부정적 상황을 억제하며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적 요인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심리적 요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관련된 후속연구 및 다각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출소자, 심리건강, 지역사회적응, 위험요인, 보호요인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석사 (제1저자)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공동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의 결과 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최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형법범죄자 중 70.5%가 재범자이며 그 중에서 전과 5범 이상의 재범자는 32.7%로, 지속적인 갱생보호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법무부, 2018). 또한, 지난 5년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수형자 중에서 22%~25%가 3년 이내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되고 있다(법무부, 2018). 출소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이후에 어떠한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정의에 의하면, 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역시 범죄와 관련된 주요 대상이며, 회복적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스스로 범죄로 인해 겪게 된 갈등을 해소하고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굳건해지고, 그 결과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Van Ness & Strong, 2006; 배임호, 2007).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재범예방을 돕는 다양한 개입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출소자들은 교정시설 수감 이전부터 사회 부적응적인 성향을 보이고, 규칙

을 지키는 조직생활의 적응을 힘들어하며,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김안식, 2010). 둘째, 이러한 특징을 가진 범죄자들이 수감되면 수동적인 인간형이 되고, 사회로 복귀 후에는 문화 지체로 인한 괴리감을 느끼고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이동훈·신지영·오혜영·박성현, 2015). 셋째, 출소자는 장기간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주변·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위험 대상자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냉대, 낙인, 경제적 궁핍,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범을 선택하게 된다(이윤호 외, 2006; 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 2011; 최경하 외, 2017).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출소자의 심리건강 상태를 방지할 경우 다양한 유형의 부적응적인 행동문제로 발전되고, 장기적으로 재범의 위험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수형자 정신건강의 위험성 또는 관리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지만, 출소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개인의 심리건강 상태나 증진을 위한 여러 요인들에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출소자의 심리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하여 검증하지 못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소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심리건강 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출소자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지원과 출소자의 심리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

출소자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형기 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를 말한다(법무부, 2018). 형벌이 한번 이상 확정되면 전과(前科)가 남는다는 의미에서 ‘전과자’라는 단어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강수운, 2016). 지역사회 적응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사회 시스템과 인간관계 등의 사회적 환경 혹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나호건, 2003). 지역사회 적응은 수형자가 출소 후 교정시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개인적·심리적·사회적인 적응범위로 이해될 수 있고 수형자의 재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혜경·서보람, 2014). 출소자는 오랫동안 지역사회 일반 구성원들과 격리된 채 살아왔기에 자신이 지지른 범죄행위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였다는 소위 ‘낙인’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어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배임호, 2009).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요 요인으로 고용 상태, 범죄와 관련된 불량교우와의 관계, 알코올 및 약물남용, 생활능력, 내면의 감정, 태도와 가치관 등이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고용상태와 알코올·약물 남용은 더욱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드러났다(김철호, 2004; 장희숙, 2008). 형사정책연구원(1994)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관련 변수보다는 생활수준이나 가족원의 수와 같은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산범일수록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범을 범하게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Broadhurst & Miller, 1990; Bonta et al., 1996; Lanza-Kaduce et al., 1999), 이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이수정·변지은, 2001; 장희숙, 2008).

2. 출소자의 심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

1) 위험요인과 지역사회 적응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낮은 자존감과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며, 쉽게 화를 내고

타인의 피해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과 냉담함을 보인다(김세일·이영순, 2008; 이수정·이윤호·공정식, 2000). 그러다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되면 지역공동체로 복귀하는 것과 재범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한다(이철호·이민규, 2006; 정유희·안창일, 2004).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수형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16.7%였고, 이중 치료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29.4%가 우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슬기 외, 2015). 또한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속하는 자살생각은 전체 대상자 중 31.9%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실제로 자살시도는 14.2%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문제와 함께 성격문제(반사회성)가 심각한 수형자의 경우에는 자살위험성이 높고 인내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이봉찬·이규희, 2012), 우울증상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소 후 자살이나 재범 등의 행동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영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8~2000년까지 석방된 48,771명의 출소자 중 442명이 자살한 것으로 발견되었다(이신영, 2008).

또한, 출소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인관계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들은 출소 후에 사회에서의 냉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공정식·김정현, 2018; 김혜미, 2016). 출소자는 출소이전의 사회적 지지 관계가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통합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해 외부로부터 고립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잘 통합된 일반인들보다 우울 및 불안으로 자살 등의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확률이 더 높다(배임호·염경진, 2010).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많은 수의 출소자가 자신감 상실, 자포자기, 대인관계 회피, 책임전가, 과대망상, 현실도피와 같은 정신적 불안증을 겪고 있고, 미지의 생활에 대한 공포와 자기중심적 편견으로 경험이나 전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이정찬, 1981), 흥분, 회피, 공격 등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다(정갑섭, 1987). 또한 범죄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상황을 만나면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정유희, 2000).

조성희(2008)는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범죄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재범여부 및 심리특성 비교 연구에서 재범집단이 초범집단에 비해 정신병적 경험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분노 등 부정적 정서와 가정문제나 직업적 곤란, 사회생활 부적응, 사회적 불편감 등 일상생활의 부적응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재범자의 정신건강상태(SCR-90-R)를 조사한 결과, 초범에 비해 SOM(신체화), OC(강박증), IS(대인민감증), DEP(우울증), ANX(불안), HOS(적대감), PSY(정신증) 등의 위험요인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저자는 정신병리 증상을 가지고 있는 출소자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범의 위험도가 높아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신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보호요인과 지역사회 적응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서 주변인들과의 긴밀한 결속관계를 뜻하며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개인을 지원하는 개입 프로그램의 성공에 매우 유용하다(장희숙, 2008; 홍봉선, 2002).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성지혜, 2001). 지역사회 적응의 과도기적 상황에 놓인 출소자에게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전환기에서 겪는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하는 데 유용하고, 건강한 인간발달을 조장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홍봉선, 2002). 또한 사회적 지지가 비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감독의 기능을 수반하면서 범죄행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희숙, 2008). 그 밖의 많은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적응에 긍정적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이수정·변지은, 2001; 장희숙, 2008; Brown, 2002; Simons et al., 1998; Woodward, 2008).

또한, Brown(2002)은 성인 남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출소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는 위기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장선숙 2011). 많은 연구에서는 출소 후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적응수준이 높았고, 가족 및 주변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용과 관심,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수정, 1999; 최희수, 1999; 심경순, 2001; 류지수, 2003; 이주희, 2009; 김정선, 2013).

출소자들이 경제적·심리적·물질적 지지 등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인식할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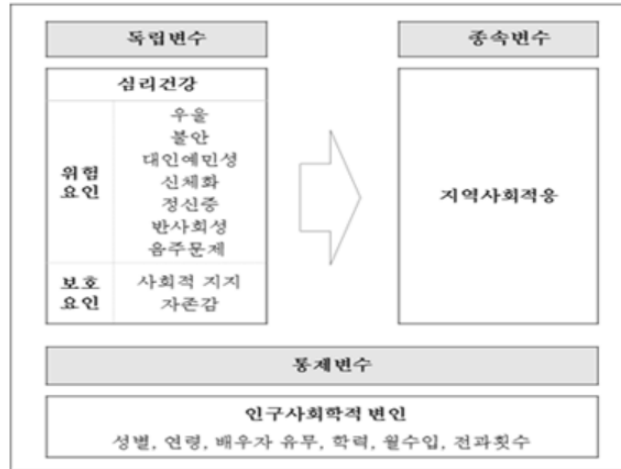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이는 직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성공적인 적응에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재범의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김혜미, 2016).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망은 가치와 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법의식과 재사회화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지속적인 지지, 경계, 일관성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봉선, 2002). 출소자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재사회화 및 강화요인으로서 자존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적응이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자존감의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정도가 낮고(이영자, 1995),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최미숙, 1993). 또한 출소자들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개인적 장애요인에 속하는 심리적 지체, 사회적 지체로 인한 개인적응상의 문제, 관계형성 기법의 부재, 지식과 기술의 부족, 낮은 자아정체감 등이 지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봉선, 2002). 출소자의 자존감은 이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되었지만, 재사회화와 관련한 여러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출소자의 심리건강요인이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검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심리건강 요인으로 위험요인에는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신체화, 정신증, 반사회성, 음주문제가 포함되었고,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 월수입, 전과횟수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Hylton(1981)의 사회통합척도 중에서 김학성(2003)이 변안하고, 장완영(2009)이 사용한 32문항을 척도로 활용하였다. 전체 척도는 하위 항목으로 일상생활에서 사회통합,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집단 참여, 가족, 친구와의 원만한 만남 등에 관한 문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답변은 likert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 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938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주요 독립변수로서 출소자의 심리건강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최경하 등(2017)이 개발한 '보호대상자의 심리건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보호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으로 위험요인으로 분류되는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신체화', '정신증', '반사회성', '음주문제' 등과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자존감'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답변은 5점 likert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문항수와 내적 일치도, 문항번호는 <표 2>에 제시되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서,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17개 지부·지소에서 최근 5년(2013~2017)간 합동결혼식을 지원받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보호대상 혹은 종료된 출소자들 중 21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타당도를 충족하지 못한 30건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86명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수행하였고,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심리건강 요인 중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순차적으로 모형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두 요인의 차별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기술통계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186명 중 남성이 172명(92.5%)으로 여성 14명(7.5%)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47.5세로 나타났으며, 50대가 70명(3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40대가 65명(34.9%)로 40~50대가 조사 대상자의 72.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0대가 30명(16.1%), 60대 이상이 15명(8.1%), 20대가 6명(3.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남성수형자가 93.2%로 여성수형자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연령별 분포는 40~50대가 52.7%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연구의 표본은 출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법무부, 2018). 최종학력은 고졸이하가 107명(5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중졸이하가 41명(22.0%), 대졸이상이 25명(13.4%), 초졸이하가 10명(5.4%), 무학이 3명(1.6%)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수는 159명(85.5%)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의 경우 대상자 중 199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수는 82명(44.1%)이며, 200~299만원은 76명(40.9%)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출소자의 대부분의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0~399만원은 20명(10.8%), 400~499만원과 500만원 이상은 각각 4명씩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전과횟수의 경우 1회가 90명(48.4%)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5회 이상이 38명(20.4%), 3회 26명(14.0%), 2회 23명(12.4%), 4회가 9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72	92.5%
	여성	14	7.5%
연령	20대	6	3.2%
	30대	30	16.1%
	40대	65	34.9%
	50대	70	37.6%
	60대 이상	15	8.1%
최종학력	무학	3	1.6%
	초졸이하	10	5.4%
	중졸이하	41	22.0%
	고졸이하	107	57.5%
배우자유무	대졸이상	25	13.4%
	있음	159	85.5%
월수입	없음	27	14.5%
	199만원미만	82	44.1%
	200~299만원	76	40.9%
	300~399만원	20	10.8%
	400~499만원	4	2.2%
500만원이상	4	2.2%	
전과횟수	1	90	48.4%
	2	23	12.4%
	3	26	14.0%
	4	9	4.8%
	5회 이상	38	20.4%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출소자의 심리건강은 9개의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척도의 기술통계와 더불어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변인들의 왜도값은 -0.372~0.524의 값을, 그리고 첨도값은 -1.061~-0.044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우울	34.54	70.71	48.84	8.839
불안	35.97	73.16	49.89	9.771
대인예민성	34.93	69.09	48.64	9.377
신체화	37.24	74.95	49.97	9.288
정신증	35.53	73.84	50.49	9.811
반사회성	34.288	76.76	50.36	10.465
음주문제	39.91	79.82	50.76	9.578
사회적 지지	21.52	69.14	49.99	10.621
자존감	25.36	69.10	52.09	9.941
지역사회적응	2.43	4.87	3.49	.532

2.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심리건강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총 3단계의 모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적용에 앞서 독립변수 상호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 팽창 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1.066~6.608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모형 1의 경우,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수입, 전과횟수 등의 통제변수들이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으로 설명력(R^2)은 0.083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학력($\beta = .177, p < .05$), 배우자 유무($\beta = .204, p < .01$), 월수입($\beta = .194, p < .01$)만이 지역사회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적응과 정(+)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함에 따라서 출소 후 지역사회에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에 소속되어서 사회적 역할을 행하는 과정은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점(이정희·이규미, 2012)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출소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지역사회 적응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가 가족 형성을 통해 1차적 유대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재범방지와 사회 내 재통합에 기여함을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월수입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의 증가는 주거와 직업형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와 주변관계와의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형 2는 이전 모형의 통제변수와 심리특성 중 위험요인으로 분류되는 변수들을 투입하여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것으로 모형의 설명력(R^2)은 0.486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우울($\beta = -.552, p < .001$)과 대인예민성($\beta = -.322, p < .01$)이 지역사회 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추가 변수의 투입으로 인해 기존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 중에서 우울과 대인예민성에 높은 수준을 가진 대상자들은 지역사회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3은 이전 모형에 추가하여 출소자의 심리특성 중 보호요인이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설명력(R^2)은 0.54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모형 2와 마찬가지로 우울($\beta = -.437, p < .01$)과 대인예민성($\beta = -.234, p < .05$)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전 모형의 표준회귀계수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하여 보호요인의 투입으로 인해 영향력이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요인 중에서 자존감($\beta = .233, p < .001$)이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 가장 크다는 점은 자존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자존감의 향상은 공격행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출소자가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합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Clear et al., 2001).

〈표 3〉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위험·보호요인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β	$t(p)$	β	$t(p)$	β	$t(p)$
통계 변수	남성	-.079	-1.062	-.057	-1.009	-.018	-.343
	연령	-.068	-.939	-.057	-1.036	-.032	-.623
	최종 학력	.177	2.387*	.042	.738	.045	.822
	배우자 유무	.204	2.786**	.096	.861	.052	.959
	월수입	.194	2.616*	.096	1.670	.116	2.108*
	전과 횟수	.025	0.094	-.053	.890	-.075	-1.337
위험 요인	우울			-.552	-4.371***	-.437	-3.418**
	불안			.184	1.557	.105	.919
	대인 예민성			-.322	-3.012**	-.234	-2.262*
	신체화			.221	1.889	.182	1.642
	정신증			-.040	-.336	.034	.294
	반사회성			-.143	-1.159	-.153	-1.314
	음주 문제			-.021	-.226	.009	.099
보호 요인	사회적 지지					.109	1.626
	자존감					.233	3.657***
상수		2.865***		5.454***		3.851***	
수정된 R2		.083		.486		.542	
F		3.773		21.113		11.510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건강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고,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에서 배우자 유무, 월수입, 최종학력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출소자에게 배우자, 가족 또는 친구와 같은 존재는 경제적·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을 하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한순옥, 2014).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인 자립을

바탕으로 직업과 주거 행태가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과 더불어,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에 소속되어 타인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사회적 규범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적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김혜미, 2016; 이경희·이규미, 2012).

둘째, 주요 독립변수 중 심리건강 위협요인이 지역사회적응의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우울과 대인예민성이 지역사회적응과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호요인인 자존감이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위협요인인 우울과 대인예민성의 부정적 영향을 다소 완화되었고, 자존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우울은 불안과 유사한 병리적 질환 및 증상과 연관되어 있고(전은영, 2011; 정현진, 2013),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은 통증, 피로 등 신체증상을 호소하게 된다(Sartorius, 2003; 이선주·하은혜, 2010). 또한, 출소자의 대인예민성이 높을수록 또한 우울 증세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권호인, 2009).

하지만, 개인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정도를 완화시키고(이영자, 1995), 고독감을 감소시키며, 긍정적인 자존감은 부정적인 심리건강을 극복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범죄 예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Fitch, 1970). 각자가 인식하는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행동양식, 성취동기,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행동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자존감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Rosenberg, 1979).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심리건강 위협요인을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촉진시켜 부정적 상황을 억제하고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출소자의 심리건강의 위협요인인 우울과 대인예민성이 지역사회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출소 이전부터 출소를 대비하여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이 출소자 지원의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출소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연계 서비스 등 장기적으로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존감은 매우 유의미한 심리건강 보호요인으로서 출소자가 건강한 자아를 인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소자 대상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향상된 자존

감을 기반으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활용해 나간다면, 출소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한층 강화시켜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출소자의 심리건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사 및 그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데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출소자의 심리건강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을 출소자 대상의 심리건강 척도인 9개 요인에 한정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출소자의 심리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모두 살펴볼 수 없었다. 또한, 표본으로 포함된 출소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합동결혼 등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한정되어 일반적인 출소자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출소자의 심리건강 척도를 통해 지역사회적응 정도에 영향을 주는 위험·보호요인을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구분하여 각각의 차별적 영향력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 나타난 주요 심리건강 요인들의 차별적인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출소자의 자존감 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수운 (2016).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이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정식, 김정현 (2018). 출소자의 삶의 질과 낙인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72, 3-32.
- 권호인 (2009).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취약성과 대인관계 취약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일, 이영순 (2008) 교도소 수형자와 일반인 간의 성격특성분석. 한국교육논단, 7(1), 21-37.
- 김안식 (2010). 수형자의 종교 활동 및 성향이 정신건강 수용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선 (2013).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호 (2004).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4, 307-314.
- 김학성 (2003).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미 (2016). 사회적응을 위한 출소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호견 (2003). 출소자의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수 (2003).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임호 (2007). 회복적 사법정의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교정연구, 37, 137-169.
- 배임호 (2009). 교정복지의 새로운 방향.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창립세미나 자료집, 1-17.
- 배임호, 염경진 (2010). 교도소 재소자의 대인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2, 91-121.
- 법무부 (2018). 범죄백서. 서울: 법무부.
- 성지혜 (2001).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경순 (2001). 정신분열병환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혜경, 서보람 (2014).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 115-144.
- 오수정 (1999).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이규미 (2012). 고등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상담학연구*, 13(3), 1537-1561.
- 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에 관한 교정전문가의 인식. *한국가족복지학*, 20(3), 499-530.
- 이봉건, 이규희 (2012). 우울-반사회적 성향 재소자의 기질 및 정서특성과 자살생각. *교정연구*, 55, 103-126.
- 이선주, 하은혜 (2010). 여자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1), 55-68.
- 이수정, 변지은 (2001). 수형자 분류심사 도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2(20), 349-387.
- 이수정, 이윤호, 공정식 (2000). 수형자들의 위험성 요인 분석과 변별도구 개발. *형사정책연구*, 44, 105-130.
- 이신영 (2008).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8, 139-161.
- 이영자 (1995).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복, 김미숙, 박민선, 박혜련 (201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II :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호, 윤옥경, 남재성, 함혜현, 김순석, 김대권 (2006).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정찬 (1981). *교정심리학*. 선민출판사.
- 이주희 (2009).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호, 이민규 (2006). 교도소 수형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1), 77-90.
- 장선숙 (2011). 수형자의 지각된 취업제한장벽이 진로포부형태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원영 (2009). 출소자의 지역사회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2008). 재범요인과 범죄유형별 특성: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 교도소 수형

- 자 대상. *교정연구*, 39, 163-190.
- 진은영 (2011).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 환자군의 MMPI-2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슬기, 이계성, 이재경, 김지선, 김수룡 (2015). 성인 및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호관찰*, 15(2), 87-129.
- 정유희 (2000). *NEO-PI-R 상에 나타난 범죄자의 성격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유희, 안창일 (2004).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수형자의 NEO-PI-R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3(23), 725-740.
- 정현진 (2013). *자존감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우울, 불안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 (2008).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범죄자들의 재범 여부 및 진단에 따른 하위 유형의 심리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6, 15-26.
- 최경하, 김석웅, 임형문, 김세영, 전기숙, 오수성 (2017). 보호대상자의 심리건강척도개발. *교정복지연구*, 49, 195-230.
- 최미숙 (1993). *고등학교의 자아 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섭, 이성식 (1994). *사회규범의 준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희수 (1999).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재활 성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순옥 (2014).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3, 55-88.
- 홍봉선 (2002). *출소자 복지증진과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14, 143-174.

2. 외국문헌

- Bonta, J., Harman, W. G., Hann, R. G., & Cormier, R. B. (1996). The prediction of recidivism among federally sentenced offender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8(1), 61-79.
- Broadhurst, R. G., & Maller, R. A. (1990). The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for the first tim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23, 88-104.
- Brown, S. L. (2002). *The dynamic prediction of criminal recidivism*.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Dissertation.
- Clear, T. R., Rose, D. R., & Ryder, J. A. (2001). Incarceration and the community: The problem of removing and returning offenders. *Crime & Delinquency*, 47(3), 335-351.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Fitch, G. (1970). Effect of self-esteem, perceived performance, and choice on casual attribu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11-315.
- Hylton. (1981). *Reintegrating the Offender. Assessing the Impact of Community Corrections*.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Lanza-Kaduce, L., Parker, K. F., & Thomas, C. W. (1999). A Comparative Recidivism Analysis of Releases from Private and public prison. *Crime & Delinquency*, 45, 28-47.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rtorius, N. (2003). Physical symptoms of depression as a public health concer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4(7), 3-4.
- Simons, R. L., Lin, K., & Gordon, L. C. (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le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467-478.
- Van Ness, D., & Strong, K. H. (2006). *Restoring Justice: 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ce* (3rd ed). Elsevier.
- Woodward, T. G. (2008). Using protective factors to change the future of corrections. *Corrections Today*, 70(1), 76-77.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Released Offend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Adaptation

Kim, Kyung-A · Lee, Chang-Bae · Gong, Jung-Sik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he released offenders on their adaptation to community. Researchers analyzed the survey data of 216 participants who received joint marriage support from the Korea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Corpo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monthly income were having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ommunity adaptation of the released offenders, and the higher the depression and inter-personality among the risk factors of psychological health, the more negative the community adaptation. A higher sense of self-esteem, a psychological health protection factor, has a positive effect on community adaptation while reducing the influence of risk factors, depression and inter-personality.

In sum, high self-esteem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social life satisfaction after release from prison, promote risk factors to positive life changes, suppress negative situations an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community adaptation. Although this study confirmed that self-esteem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psychological factors for successful community adaptation of inmates, it will require relevant follow-up research and multi-disciplinary support because psychological factors alone cannot solve the problem.

Keywords: Prisoner, Psychological health, Community adaptation,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